

B - 4 전기적 자극이 치주조직세포에 미치는 영향

이 육, 박준봉, 이만섭, 권영혁, 허 익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목적

19세기에 정형외과 영역에서 비유합성 골절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임상에 시도되었던 전기자극의 이용은 현재에 이르러 골세포의 증식 및 분화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많은 실험적, 임상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명확한 기전의 규명에 대한 연구는 진행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있는 골세포 대한 전기자극의 촉진효과에 근거하여, 치주조직을 이루는 다른 세포들, 즉 치주인대세포와 치은섬유아세포를 대상으로 세포증식, 단백질 함량, 알칼리성인산분해효소 활성도를 측정하여 전기자극이 이들 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치주인대세포와 치은섬유아세포의 배양 ; 치주인대세포는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발거한 제1소구 치 치근의 중앙 1/3부위의 연조직을 절취하고, 치은섬유아세포는 동일 치아의 치 간유두부 연조직을 절취하여, 직경 35mm 배양접시에 분포시킨 후 섭씨 37도, 습도 100%, 5% CO₂ 공기혼합상태의 배양조건에서 세포를 배양해서 세포가 배양접시를 덮는 단층으로 형성되면, 계대배양하여 47세대의 세포를 실험에 이용하였다.
2. 이들 각각의 세포들을 stainless steel electrode가 부착된 6-well 배양접시에 5×10^4 cells/ml가 되도록 분주한 뒤, 24시간뒤에 전기자극기 Acutron Multiwave(Microcurrent Research, INC., U.S.A.)를 이용하여 대조군(C), 실험군1(T1, 0.25μA, 30Hz), 실험군2(T2, 1.00μA, 30Hz), 그리고 실험군3(T3, 2.50μA, 30Hz)의 각각에 12시간의 전기자극을 가하였다.
3. 전기자극을 종료한 후, 60시간 더 배양한 뒤, 세포증식, 단백질 함량,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연구성적 및 결론

1. 세포증식 ; 치주인대세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모든 실험군에서 세포수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각 실험군에서 T3군이 다른 T1, T2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치은섬유아세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모든 실험군에서 세포수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나, 각 실험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2. 단백질함량 ; 치주인대세포나, 치은섬유아세포 모두에서 대조군과 실험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3. 알칼리성인산분해효소의 활성도 ; 치주인대세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모든 실험군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나, 각 실험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치은섬유아세포에서는 대조군에 비

해 T3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4. 결론적으로, 전기자극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골세포의 증식뿐 아니라, 본 실험을 통해 치주인 대세포와 치은섬유아세포의 세포증식 및 알칼리성인산분해효소의 활성을 촉진할 수 있어, 상실된 치주조직의 재생이라는 치주치료의 궁극적 목표를 위한 임상적 활용의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